

“최지만, 벤치로 밀려날 수도”

메이저리그(MLB) 탬파베이 레이스와 재계약을 맺은 최지만(30) 앞에 2022시즌 험난한 주전 경쟁이 예고됐다.

지난 27일 ‘뉴스1’에 따르면 MLB트레이드루머스는 전날 탬파베이의 2022시즌을 전망하면서 최지만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지만은 2021시즌 종료 후 320만 달러에 재계약을 체결했다. 전년 연봉 245만 달러보다 75만달러가 인상됐다. 그러나 최지만의 입지는 1년 전보다 좁아졌다. 잦은 부상 탓에 2021시즌 83경기 출전에 그쳤고, 성적도 타율 0.229 11홈런 45타점으로 구단의 기대치를 밑돌았다.

육성을 강조하는 탬파베이는 전통적인 스프링캠프 구단이지만 잠재력이 높은 유망주들이 많다. 이들을 앞세워 최근 좋은 성과도 냈다. 2020시즌 월드시리즈 준우승을 차지했고, 2021시즌 아메리칸리그 팀 중 유일하게 100승을 거뒀다.

‘슈퍼루키’ 안드레 프랑코는 메이저리그 첫 시즌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기더니 11년 1억8200만달러의



▲ 최지만 선수. 사진=mlb.com

장기 계약을 맺었다. 또한 랜디 아로자레나는 3번째 시즌에 만개하며 아메리칸리그 올해의 신인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들 외에도 테일러 윌스와 비달 브루한이 주목받고 있는데 최지만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MLB트레이드루머스는 “탬파베이는 과소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대 강점은 벤치 뎀스”라며 “유망주 중에는 다재다능한 수비수와 스위치히터 등이 있다. 브루한과 윌스가 꾸준한 출전 기회를 요구한다면 1루수 최지만과 3루수 안디 디아즈가 벤치로 밀릴 수 있다.”고 전했다.

박성현, 지난해 여자 골프 ‘세계 랭킹 추락’ 1위

지난해 여자 골프 세계랭킹 하락 1위는 ‘박성현’이었다.

지난 29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미국 매체 골프채널은 이를 전 2021년 남녀골프 세계랭킹 등락률을 소개했다.

박성현은 지난해를 10위, 올해를 107위로 마쳤다. 97계단 하락했다. 박성현의 랭킹 하락률은 -970%다. 하락률 2위인 카를로타 시간다(스페인, -206%)의 4.7배나 된다. 시간다는 15위에서 46위로 내려앉았다.

박성현은 2017년 7월 US여자오픈을 시작으로 2019년 6월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까지 7승을 거두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19년 11월 어깨를 다친 뒤 길고 긴 슬럼프에 빠졌다. 크고 작은 부상이 이어지면서 성적은 푹 떨어졌다. 박성현은 지난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 19차례 출전했지만 10번이나 컷을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최고 성적은 지난 9월 캄비아포틀랜드클래식의 공동 15위다.

박성현은 시즌을 끝내고 한국에서 재충전하고 있다. 충분한 휴식으로 피로감을 털어내고 올시즌에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남자골프 세계랭킹 하락 1위는 우즈가 차지했다. 우즈는 지난 2월 운전 중 차량이 전복 사고 이후 공식대회에 출전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랭킹포인트를 얻지 못해 급락했다.

우즈는 2020년 세계 41위, 지난해는 566위로 마쳤다. 무려 525계단이나 하락했다. 우즈의 랭킹 하락률은 -1280.49%다.

우즈는 부상을 딛고 오는 4월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에 출장할 것이라 관측이 나돌고 있다.

소렌스탐 “우즈 아들 기량 최고”



▲ 타이거 우즈와 그의 아들 찰리 우즈. 사진=더선UK

여자 골프계의 ‘살아있는 전설’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아들인 12세 찰리에 대해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기량은 최상위권”이라고 칭찬했다.

지난 27일 JTBC GOLF에 따르면 소렌스탐은 최근 포브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 시점에서 찰리와 타이거를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지난 2020년에 찰리를 처음 봤는데 또래 친구들과 비교하면 찰리의 기량은 최상위권”이라고 평가했다.

소렌스탐은 2020년 12월 가족과 팀을 이뤄 출전하는 이벤트 대회 PNC 챔피언십에서 우즈 부자를 처음으로 만났다. 당시 세계 골프계는 ‘11세’ 우즈에게 푹 빠져있었다. 역대 최연소 출전자였던 찰리는 대회 첫날부터 정교한 샷으로 이글을 잡아내면서 팬들을 사로잡았다. 당시 우즈 부자는 함께 20언더파를 합작해 7위로 대회를 마쳤다.

소렌스탐은 우즈의 복귀도 반겼다. “찰리의 꿈인 우즈의 재기가 이뤄졌다.”면서 “아버지의 역할도 좋은 일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즈가 다시 필드에 돌아왔던 점”이라고 기뻐했다. 우즈는 지난 2월 차량 전복 사고 이후 올해 PNC 챔피언십을 통해 약 10개월 만에 공식 대회에 나섰다.

한편, 지난 2008년 유럽 투어 대회 우승 이후 필드를 떠났던 소렌스탐은 지난 8월 처음으로 US 시니어 여자오픈에 출전해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하는 등 골프 여제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 싸인 플러스 ★

간판

LASER ENGRAVING

★ 명찰 ★

1"X3" W/ PIN

\$5.50

+TAX W/ THIS COUPON

★ 싸인 플러스 ★

트로피

세리토스점

SIGNPLUS

SAME DAY SERVICE AVAILABLE

TROPHY & ENGRAVING

FAX: (562) 809-3878

SIGNPLUS123@YAHOO.COM

(562) 809-0448

★ OPEN MON-SAT ★

17615 PIONEER BL., ARTESIA, CA 90701